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30~2015.7.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3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4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5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흘반난,밥먹기어렵다	김진태	불광출판사
7	스님의 생각(자유하라,깨우쳐라,행복하라)	정법안	샘앤파커스
8	경허선사 선시(현담이좋아하는)	현담	도서출판선
9	깨달은 절수행이란?(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청견스님	다르마킹
10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저자와의 1문 1답

'불교적 깨달음' … 父가 내린 평생 화두



저자 **황경환**은?

울산 온산서 태어나 동국대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했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원구원과 인연을 맺어 30여년간 이 단체의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 했다. 현재는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있다. 또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국제민간외교 단체) 회원으로 활약중이며, 지난 1996년과 97년 국제 PTP한국본부 총재직과 울산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주)경주 ICS대표이사로 있다. 저서로는 〈반야심경〉(김사철, 황경환 공저)과 연구논문인 〈신라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번 책은 증보판이라 들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약 10% 정도의 내용이 보강됐다. 또한 영의 존재, 사성제, 팔정도 등의 내용 이해를 명확히 도와줄 체계화된 도표와 도식을 10여 장에 걸쳐 실었다.

대승불교 경전을 30여년 간 공부하면서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개념들을 극히 사전적이고 명확하게 도표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37보리분법, 괴로움의 발생 및 소멸 구조, 12연기 등은 결국 누구라도 윤회의 족쇄를 끊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어쩐지 많이 다루지 않아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 부분을 도표로 명확히 했다.

–이 책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불교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읽힐 목적으로 쓰였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한다. 불교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사유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도 이 책을 쉽게 공감할 것이다. 다만 내용 자체가 어려워 재미가 없을까봐 역사 문제, 일반 상식 문제 등도 다뤘다. 또한 책 속에서 일본 불교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책은 연기적 무아를 내세워 세상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불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듣는 이들이 선택해야 한다. 30여년 간 불교 공부를 하면서 관심없는 이들은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연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 고 말하지 않았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향한 정보를 전할 뿐 선택은 타인의 몫이다. 니까야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님은 내 말을 들어볼래라고 말한다. 상대방이 청하면 그제서야 설법했다. 부처님은 본인의 다르마가 필요한 중생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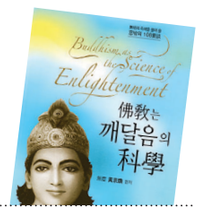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9살 때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전까지 내 의식에는 죽음이란 개념이 없었다. 아버지는 뒤이어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불교 공부는 꼭 해보라고 당부하셨다. 불교가 전하는 내용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논리적인 불교를 알진 못했지만 '관세음보살' 을 반복해서 외우시는 신심이 있는 분이셨다. 당신의 정확한 속마음을 헤아릴 순 없었지만 그 말은 인생의 화두가 됐다.

1987년에 김사철 박사를 만날 때 까지는 불교를 잘 몰랐다. 김 박사는 초기 불교에 대단한 지식이 있었다. 컴퓨터응용수학을 전공해 NATO서 방공망 설계를 한 분이다. 어느 날 그가 울산서 〈반야심경〉의 '공즉시색 색즉시공' 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듣고선 깨달음의 희열을 느꼈다. 그때까지 수없이 반야심경을 읽고도 의문투성이였는데, 조목조목 과학적 예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기가 막힐 정도였다. 이후 김사철 박사에게 10여 년 동안 팔리어 경전을 사사받고, 2002년에 초기불전연구원에 합류했다. 이후 전재성 박사가 쓴 팔리어 사전 제작 비용을 후원했고, 각종 팔리어 관련 책을 집필하는 등 열심히 활동했다.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과학적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초기 불전을 보면 대승불교 속 부처님의 말씀이 많이 왜곡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초기 불교를 꼭 알아야 하나?

그렇다. 초기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승경전에 나열된 말씀 모두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승불교는 신앙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 말씀이라도 검증되지 않으면 논란이 일게 될 것이란 의미다. 가령 대승불교서 '관세음보살'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존재는 서기 1세기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관세음보살을 통해 삼매에 들라는 말도 전혀 없다. 대승불교 경전은 그것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굳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의미가 퇴색된다. 대승경전은 쓴 연대와 저자가 없다. 있다고 해도 용수보살이 용궁에 보관된 책을 펼칠 때 6000명의 전각보살이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초기불교를 이해하면 객관성과 상식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1만5천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은 저자가 살아온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온통 불교적 깨달음에 쏠려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아홉 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듣던 '누구나 죽어야 하는 존재' 라는 것을 일종의 화두로 받았다. 그리고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꾸준히 불교적 깨달음의 열매를 숙성시켜 왔다. 그 숙성된 열매들을 108가지 요담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다.

저자 황경환 회장(진양 유조선 대표이사, 초기불전 선임연구원)은 "불교 공부를 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불교를 과학이라 했지만 분명한 증거와 논리적 설명이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여지껏 부족했던 부분이 짤막하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돼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 다시 말해 열반을 쟁취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열반은 특정 종교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누구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고 병들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삶의 실존적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생로병사가 우리 의식이 빚어낸 '전도망상' 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다면 누구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책 속에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온갖 풍파 자체를 깨달음에 접속키 위한 일종의 화두로 받아들였다. 세상 풍파와 싸우다가 지면 그 사람은 심신이 부패될 뿐이지만, 그 싸움 자체를 나와 너와 세상과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면, 그것은 오히려 깨달음의 촉매가 돼 그 사람을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즉 걸림돌이 오히려 받침돌이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그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숙성 발효시켜서 깨달음을 무르익혀 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선 자립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의 지성(知性)을 성숙시켜 주었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듯 꼬랑꼬랑한 내 사까야(몸)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는 더더욱 나로 하여금 불법의 의미에 가깝게 다가가도록 채찍을 가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무명(無明)의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음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는 어떻게든 이 생사의 꿈서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다. 마음의 중심이 깨어 있는 사람은,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깨달음을 위한 공부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의 불교적 살림살이의 바탕은, 부처님의 본래 음성에 가장 가까운 근본불교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초기불전 인용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줄줄 흘러나온다. 그가 근본불교를 내내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는 이 책의 여기저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명 족쇄 풀어줄 108가지 요담 정리
저자의 해박한 근본 불교 지식 돋보여
불교교리 이해 쉽게 도표와 도식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근본불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을 현대과학이 어떻게 입증해 내는지를 탐구해 오면서, 그 결실들을 책의 곳곳에 선보인다. 현대과학은 불교가 추상적인 문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곧이곧대로 작용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점점 더 여실하게 증명해 가며 이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불교의 현대화를 시도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에는 한 가지 분명한 장점과 또 한 가지의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만약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것이죠. 또 장점은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 즉 생로병사와 이별 등을 겪고 '나는 왜 지구에 왔으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본 사람은 단 번에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단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 쓰여진 모든 구절들이 무명의 족쇄를 풀수 있는 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